

# 협회소식

## 본회, 돼지가격 안정대책 강력 추진 키로

- 본회 제2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 정부 구매요청 · 모돈 1만두 도태 결정



본회는 지난 2월 21일 제24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돼지가격 안정대책의 강력 추진을 위해 모돈 1만두를 도태키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5개월 여간 계속되고 있는 낮은 돈가에 대한 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정부구매 요청과 돼지고기 소비대책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 구매를 강력 건의하되 구매된 돼지고기가 국내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대북지원이나 해외수출 등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돈육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차원의 소비대책 마련과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이러한 정책건의에 힘을 싣고, 효과적인 가

격 안정을 위해 본회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육두수 기준으로 도태 모돈 1만두를 모으기로 긴급 결정했다. 모여진 모돈 1만 마리는 정부에 전달하여 대북지원용 등으로 처리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92page 참조〉

## 이사회, 2003년 돈가안정 대책 마련 위해 집중 논의

- 원주지부 설립 승인



본회는 지난 2월 10일 임원실에서 금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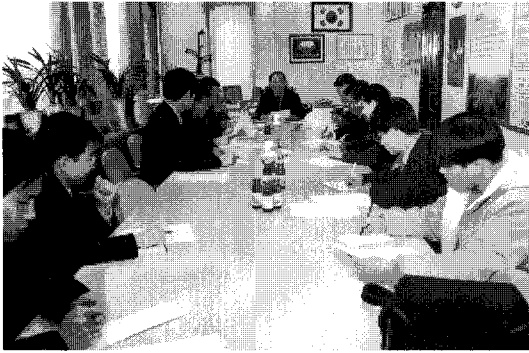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부 설립 승인(안) ▲규정 개정(안) ▲2003년 자조금 사업관련 TV 홍보비 미납금액 납부독촉 결의(안) ▲2002년도 사업추진 실적보고 ▲2002년도 수지결산 승인(안) ▲정기총회 상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지부를 설립한 원주지부(지부장 김주천) 설립을 승인하는데 동의하고, 지부

회원을 기준으로 한 대의원 선출 규정은 7월까지 유보키로 했다.

## “전국 단위 통일된 살처분 보상 기준을 만들자”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대표자회의서 제기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시 조기에 살처분을 실시하고, 살처분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산정과 지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살처분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회는 2월18일 임원실에서 김동환 부회장(양돈 방역대책위원장) 주재로 경기도협의회장과 안성·강화·김포·이천·평택·진천지부장 등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 등은 “시군별로 살처분가축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별로 평가기준이 다르고, 같은 모돈과 비육돈이라도 산정 방법과 금액이 달라 살처분농가들이 수긍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지부장 등은 “이같은 이유로 살처분농가와 당국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보상금 지급기간도 길어져 사료대금 지급도 제때 못한다”며, “중앙정

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세부 살처분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방역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돼지콜레라 공제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3월 초순까지 전국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후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김명자 환경부 장관에 감사패 전달

— 양돈산업 친환경화와 돼지고기 소비촉진 노력에 기여



평소 직원들의 생일 때마다 직원들에게 돼지고기를 선물해 온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본회 김건태 회장은 회장단과 함께 지난 2월 10일 환경부를 방문하고, 평소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양돈산업의 친환경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김명자 환경부 장관에게 금 돼지 모양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감사패를 받고 “복스러운 금돼지상을 받아 앞으로 행운이 잇따를 것 같다”며, “축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98페이지 참조)

## 본회 법률 고문에 김태욱 변호사 위촉



본회는 지난 2월 18일 본회 법률 고문에 김태욱 변호사를 위촉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앞으로 1년간 본회와 관련된 소송, 화해, 기타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과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태욱 변호사는 본회 이사와 제주지부장, 제주도협회회장을 역임한 김상호씨의 아들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주도에서 직접 양돈장(아라농장, 2000여두 규모)을 경영하는 등 법과 양돈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으로 본회와 회원양돈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5페이지 참조>

## 약사법개정 “양축현장의 현실을 고려 신중히 결정해야”

- 본회, 김홍신 의원 등 23명 의원에게 재고요청

지난해 10월 13일 김홍신 의원 등 23명 의원은 동물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동물 의약품은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감독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

로 하는 약사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는 이와 관련해 “동물약품은 양축농가에서 치료용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생산원자재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전기업화에 따라 개체별 처방 투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축현장 및 인근에 산업동물 임상 가축 병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양축농가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등의 가중 및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발정·분만 동기화 유도, 정기적인 축사 청정화 크리닝 등은 사육단계별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일일이 개체별 처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양축현장의 현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김홍신 의원 등 23명의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 “홈페이지 1백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실시

- 디지털카메라, 오디오, 선풍기 등 푸짐한 경품 전달

본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방문자수 1백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다.

본회는 지난 1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그동안 본회 홈

페이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동안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다. 추첨결과는 3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제1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60만원

지난 1월 20일 본회 공인 중돈능력검정소 제 1검정부(경기 이천) 제 221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60만원으로 나타났다.

111두의 합격돈이 상정되어 89두가 낙찰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68만 2,632원, 암컷 평균 낙찰가는 46만 5,625원으로 나타났다.

### 제 2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84만원

지난 2월 10일 본회 공인 중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 제 150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84만원으로 지난달 낙찰가 평균 60만원에 비해 큰 폭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0두의 합격돈이 상정되어 128두가 낙찰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1만2,169원(83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2만 7,556원(45두)으로 나타났다.



일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6,000kg 1,74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경기도에 기탁했다. 이광우 회장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하여 손학규 경기지사에게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경기도협은 도내 15개 시·군지부 832명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성금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한편 기탁된 돼지고기 6,000kg는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하여 2월 1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도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20여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 여주지부, 장애우 복지시설 돼지고기 200kg 전달

- 이규택 의원 부인 이재옥 여사 등과 '라파엘의 집방문

본회 김건호 여주지부장은 지난 2월 6일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부인 이재옥 여사, 윤봉중 축산신문사장, 윤상익 여주축협조합장 등과 함께 경기여주시 소재 '라파엘의 집(원장 정지훈)'을 방문, 국산 돼지고기 200kg를 전달했다.

이날 김건호 여주지부장 등은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시설을 둘러본 뒤 시설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 하기로 했던 이규택 의원은 긴급 업무로 참석하지

##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 경기도협 사랑나눔 돼지고기 전달

- 돼지고기 6,000kg, 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전달  
본회 경기도협의회(회장 이광우)는 지난 2월 6

못한 대신 부인인 이재옥 여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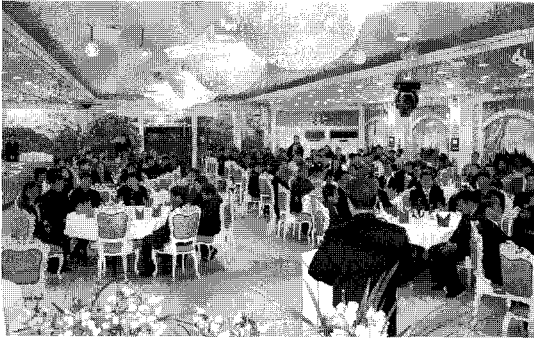
## 원주지부 설립 승인

본회는 지난 2월 10일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주지부 설립을 승인했다. 새로이 설립된 원주지부는 회원이 22명으로 초대 지부장에 김주천 씨(45)를 선출했다. 김주천 초대 원주지부장은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서 모든 180두와 토종 돼지 400두의 농장을 경영해 오고 있다.

- 지부주소 : 강원 원주시 단구동 1515-3
- 전화 : 033)762-3680, 팩스 : 033)762-3681

## 김포지부 '김포시 양돈인의 밤' 행사 성황리 개최

- 양돈농가 및 김포시장·국회의원 등 220여명 참석



김포지부(지부장 민경국)는 지난 2월 13일 그동안 돼지콜레라로 인한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와 돼지콜레라 종식에 적극 동참해 온 협력업체, 기관·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포시내 황제 웨딩프라자에서 개최된 '김포시 양돈인의 밤' 행사에는 김포지역 내 양돈농가를

비롯, 관련업계, 기관, 단체 관계자들 22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본회 김동환 부회장과 김동식 김포시장, 박종우 국회의원, 신광식 시의회 의장, 김포축협 조합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지역 내 많은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더욱 자리를 빛냈다. 김포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김포축협 축산팀,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방역팀 외 8팀에 그간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김응철 전 김포지부장(공동방역단장), 임청수 총무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이날 양돈인으로 구성된 공동방역단 일동은 돼지콜레라 조기차단과 청정화를 다짐하고 ▲소독을 생활화하여 돼지콜레라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설 것 ▲농가 출입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대장을 지참할 것 ▲운반 차량별로 소독장비를 보유하여 차단방역에 앞장설 것 ▲의심증상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할 것 등 4개항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1백47만1천원이 모금되었다. 김포지부는 모금된 성금 전액을 김포시청 축산과에 전달할 계획이다.

## 아산지부 회원 농장에 화재 발생

- 회원들이 함께 참여 위로금 전달 등 운운안정 나뉨

지난 2월 12일 본회 아산지부 회원 농가(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소재)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축사와 돼지가 타 죽는 등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모든 60두 규모로 농장의 경영하는 한광수씨는 이날 "농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전기스파크가 생기면서 갑자기 보온덮개에 불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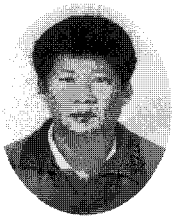
발생 순식간에 확산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로 인해 축산 80평 건물이 완전 전소 되는 한편 돼지 비육돈 180두가 폐사되어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진화됐다. 한편 사고 후 본회 아산지부 회원들은 농장을 방문하여 돈사 주변정리를 비롯해 사고 수습을 함께 실시하고, 회원들이 모금한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회원들의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 천안지부, 돼지 출하시 전국 시세 적용기로

천안지부는 지난 1월 22일 지부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천안시에 지역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요청기로 하는 한편 돼지 출하시 전국시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아산지부장에 서석천씨 선출



서석천 아산지부장

충남 아산지부는 지난 1월 24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석천씨를 신임 아산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아산지부장으로 선출된 서석천(47)씨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에서 모돈 200두 규모의 두원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 예산지부장에 이상열씨 선출

충남 예산지부는 지난 1월 17일 예산축협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상열(53)씨를 신임 예산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예산지부장으로 선



이상열 예산지부장

출된 이상열씨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곡리에서 2,000두 규모의 백송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홍운종, 감사 이준원, 김동협, 총무 김영만, 운영위원 임준기, 권영석, 김진완, 김용배, 이창연, 김문환, 이성우씨를 각각 선출했다.

### 김포지부장에 민경국씨 선출



민경국 김포지부장

경기 김포지부는 지난 1월 27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사무실에서 2003년 연시총회를 개최하고, 민경국씨를 신임 김포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김포지부장으로 선출된 민경국씨는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서 1,400두 규모의 느티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 괴산지부장에 안성호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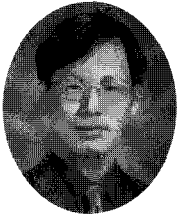
안성호 괴산지부장

충북 괴산지부는 지난 1월 17일 회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성호씨(51)를 신임 괴산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괴산지부장으로 선출된 안성호씨는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소재에서 500두 정도의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연규원, 이재홍, 감사에 김진용, 총무에 양근모씨를 각각 선출했다.

### 보은지부장에 방희진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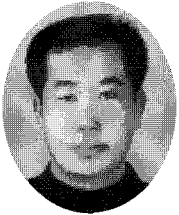


방희진 보은지부장

충북 보은지부는 지난 1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방희진(48)씨를 신임 보은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보은지부장으로 선출된 방희진씨는 1980년 연암축산전문대 축산과를 졸업 후 현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서 모돈 270두 규모의 F1 모돈 생산전문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 익산지부장에 신동현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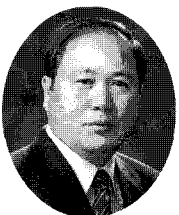


신동현 익산지부장

전북 익산지부는 지난 1월 17일 지부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동현(41)씨를 신임 익산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익산지부장으로 선출된 신동현씨는 전북 익산시 남산면 용기리에서 1,900두 규모의 두리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 마산지부장에 박수길씨 선출



박수길 마산지부장

경남 마산지부는 지난 1월 28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수길씨를 신임 마산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마산지부장으로

선출된 박수길씨는 경남 마산시 진북면 망곡리 소재에서 1,100두 정도의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목성환, 총무에 유기욱씨를 각각 선출했다.

### 양산지부장에 박창규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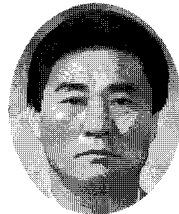
박창규 양산지부장

경남 양산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지부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회의실에서 예산총회를 개최하고, 박창규씨(66)를 신임 양산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양산지

부장으로 선출된 박창규씨는 경남 양산군 웅상읍 주남리 소재에서 양산양돈영농조합법인을 경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감사에 황종표, 박운철, 운영위원에 강영호, 김용선, 조용래, 박정철, 이강수, 총무 구춘홍씨를 각각 선출했다.

### 보성지부장에 박일도씨 선출



박일도 보성지부장

전남 보성지부는 지난 1월 21일 1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박일도씨(56)를 신임 보성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괴산지부장으로 선출된 박일도

씨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에서 1980년 돼지 10두를 시작으로 현재 1400두의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 화순지부장에 정성국씨 선출

전남 화순지부는 지난 1월 17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정성국씨를 신임 화순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화순지부장으로 선출된 정성국(54)씨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남에서 1,400두 규모의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양돈**